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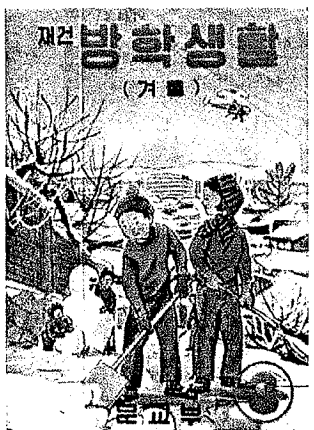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을 줄 알아야 사람이다

김 성 국

때로는 저무는 저녁 늘 앞에서 을 줄 알아야 한다.
 남들과 가던 길 빗겨나 반듯하게 살아 갈 용기 없었노라며
 이제라도 고트머리 남은 생은
 반드시 착한 자들 편에 서겠다며
 옳은 것에 당당해진 내가 기록해
 가슴 벅찬 울음을 을 줄 알아야 사람이다.

때로는 바람을 맞으며 을 줄 알아야 한다.
 크게 작게 흔들여 대는 유혹에
 남들 다 가는 길이라며 몸을 맡겨 살다가
 이제는 늙고 지쳐서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맑은 나를 찾은 감격에 울음을 을 줄 알아야 사람이다

때로는 눈 바람에 잉잉대는
 차가운 전봇대에 기대어 을 줄 알아야 한다
 세상 앞에 벗겨진 내 모습 하도 서러워
 왜 이리 삶이 고달프냐고 주저앉다가도
 나 하나 바라보는 처자식 눈망울에 힘내
 새들 앉아 쉬는 봄날 오지 않겠냐면서
 물안개 차오르는 하얀 울음을 을 줄 알아야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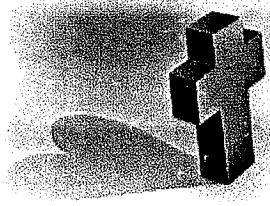


◀그땐 그랬지▶ 방 학 책

방학 날이면 인쇄기를 냄새가 좋았던 방학책 한권
 싹을 받아 들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읽을 거리가
 흔치 않았던 시절인지라 방학책 속의 만화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방학책을 매일 조금씩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게 내 친구들의 공통점이었
 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방학책의 압권은 제일 앞
 면의 일기쓰기 였습니다. 개학 전날 한꺼번에 쓰
 다보니 친구들끼리 날씨가 모두 달랐습니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을 선생님께서 눈감아 주셨던 그
 옛날의 겨울 방학책, 개학하는 아이들을 보며 그
 시절 방학의 낭만이 그리워집니다.

교 회 목 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 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 보 리 교 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3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7월24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새벽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해야하는 이유



1. 새벽기도를 할 수 있는 여자는 아침 밥도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새벽에 교회 갔다오면 다들 자고 있어서 마땅히 얘기
 할 사람도 없어 설거지를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밥
 통에 쌀도 씻어 두고 스위치도 툭 눌러 둔다. 요즘
 세상에 출근할 때 부인이 일어나서 잘 다녀오라고 하
 기만해도 감격스러운데 아침밥 먹고 출근 할 수 있는
 남자는 정말 행복한 남자다.

2. 새벽기도의 여자는 '잔소리'를 안하기 때문이다.
 새벽기도때 내내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하고와서 보면 쿨쿨 자는 남편이
 그렇게 예쁠 수 가 없다. 침대 옆에 굴러 댕기는 양말은 기쁜 마음으로 빨래통
 에 넣어둔다. 거실에 널려있는 장난감, 책등은 쓰다듬으면서 정리한다.
3.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여자' 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고자세 고대로 남편에게 대한다. 하나님께 대드는
 여자들, 누구한테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들 하시라.
4. 새벽 기도하는 여자의 자녀는 꿈을 심어가면서 자란다.
 새벽마다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꿈을 꾸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또 집에 돌아와서는 잠자는 자녀 옆에서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찌 그자
 녀가 꿈대로 되지 않겠는가?
5.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무서운 기도빨' 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리듯, 여자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
 기 시작하면 은혜가 비오듯 내린다.
6.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부지런한 여자' 이기 때문이다.
 게으른 여자들은 아침에 눈 절대 못 뜬다. 화장실 볼일 빼고는.
7.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식성도 좋고 건강하다.
 아침에 교회까지 한바퀴 돌고 나면 배고프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아침 엄청 먹
 는다. 아침을 꼭 먹으면 건강하다는건 건강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말씀따라 행하기▶

예배, 집회, 기도모임에
 끌려 다니지 말고
 끌고 다니는
 주도하는 삶을 살자

◀인품따라 행하기▶

평소에 잘 하라
 평소에 쌓아둔 덕은
 위기 때
 빛을 발한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3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d	38 (사 42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360장	
기 도 Pray		김영길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다니엘3: 13-18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선지자 시리즈(6) "그리 아니 하실찌라도"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34 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7월의 예배위원◆

일자	기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3	현석호	김종우	10구역
10	김교섭	김종원	1구역
17	김순자	김진근	
24	김영길	마경춘	2구역
31	김종건	민광호	3구역

◆7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3	구역예배(8). 겨울심방
10	믿음의어머니기도회(12) 학생부Camp(11-13) Concert(16)
17	교회창립기념 전교인 운동회
31	이삭줍기주일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여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2. 전도하지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남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저녁 4시

- 교우소식
*<부친 별세> 김석목 집사(1구역. 1남선). 17일 별세. 한국도착 후 임종을 지켜드려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자주 뵈지 못한 죄스러움을 조금이나마 갚았습니다.
-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 찬양. 말씀: 박성천 목사>
*성경은 많이 아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복잡하지만 생각을 깊이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수요일예배를 통해 깊이있는 말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 다음주일 "이삭줍기주일" : 7월에 모은 Silver Coin! 7월의 장마비처럼 사랑의 마음이 풍성히 전해질 것입니다. (태국, 필리핀, 한국의 어린이)
- 성경공부 <인도> 박성천 목사 <교재> '목적에 있는 삶' -릭 워렌-
<일시> 매주 금요일 저녁 7:30. 교회
- 유치부(Pre School) 교사로 봉사하실 교우를 기다립니다.
<시간> 주일 12시 <문의>: 이민영 집사
- 새벽기도회 <일시> 매주 금요일 새벽 5:55분. 교회
*아직은 새벽이 겨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장 따뜻하게 몸을 감싸고 오시면 좋습니다.

◀착한 시인들▶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츠지 히토나리

나는 힘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힘내라는 격려의 말을 기대하고 있지?
그건 지금 너에게는 역효과야.

'힘내라, 열심히 살아라'라고
격려하는 소리들만 넘치는 세상,
이제 사람들은 그런 말로는
참된 힘이 솟지 않아.

나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이 어디 웃을 일만 있던가요?
장미 가시에 찢기듯, 양철 지붕에
올라 앉아 있듯 아프고 외로움이
실타레로 이어져 있는게 삶이 아
니던가요?

잡아 줄 것 같던 손마저 하나 둘
식어져 있을 때 그저 한번 쳐다봐
주며 깊이있는 웃음을 주는 마음
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
만 기대야 할 때 기댈 수 있는 기
둥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 또 한번 힘을 내야 겠습니
다. 세상에는 울다가 웃어도 괜찮
은 사람들이 있습니다.